

[야간 브리핑]

2026.07.15 글로벌 시황 브리핑

KOSPI 7,000선 돌파와 美 물가
둔화가 촉발한 글로벌 랠리

생성일시: 2026-07-15T22:01:27

핵심 관전 포인트 및 자산 배분 전략



Overweight: 단기 Tech 주식 & 금

외국인 2.3조 원 순매수 및 반도체 랠리. 인플레이션 둔화와 달러 약세(-0.32)로 인한 안전자산(금) 수요 확대.



Neutral: 글로벌 분산 펀드

유럽(방산주 상승 vs 지수 하락), 일본(엔화 약세발 수출주 호조) 등 지역별 편차 뚜렷.



Underweight: 중국 & 에너지 민감 자산

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재개 및 트럼프 발언으로 인한 유가 급등 (WTI \$80.07) 리스크. 중국 GDP 부진 우려 지속.

글로벌 매크로 Force Field (시장 견인 및 압박 요인)

지정학적 리스크 & 유가:

트럼프 '호르무즈 통행료' 번복 및 이란 해상 봉쇄 우려로 원유 10% 이상 급등 변동성.

중국 매크로 부진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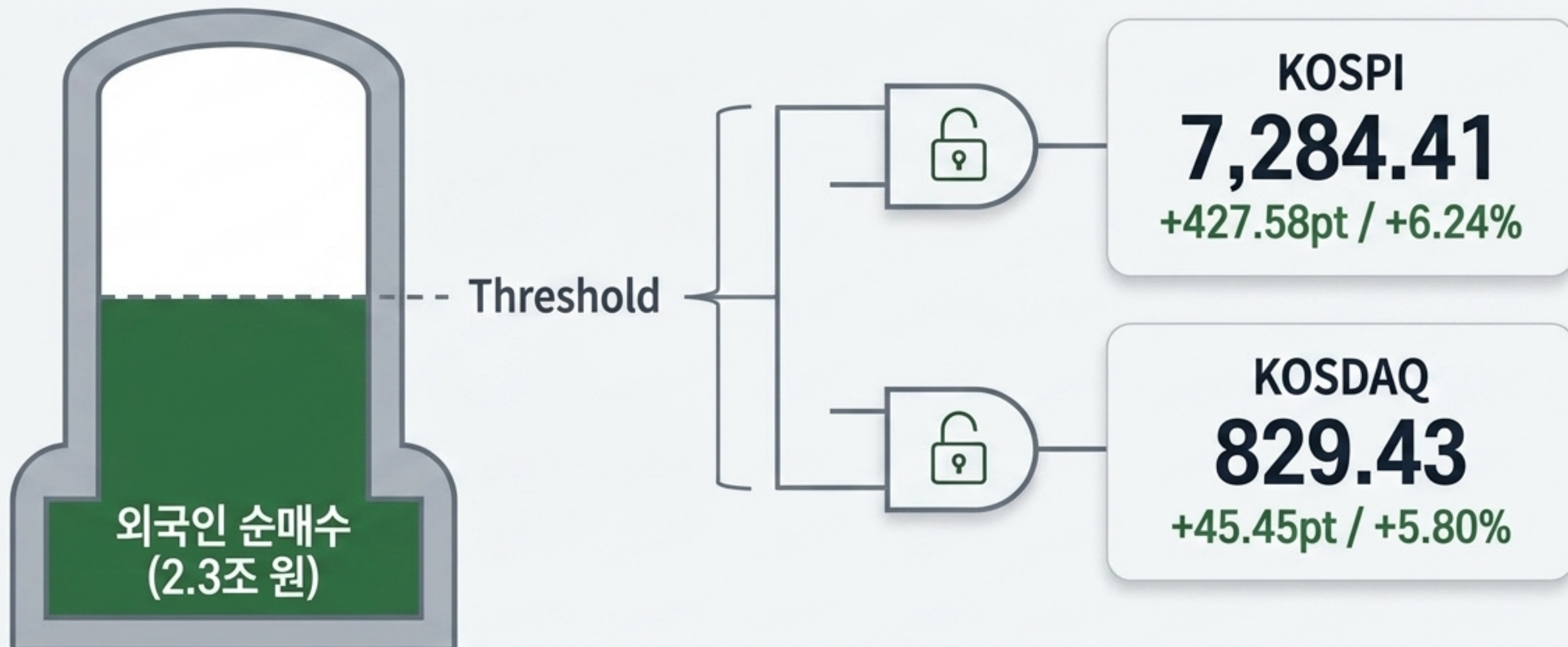
소매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, 2분기 GDP 둔화 우려(예측 4.5%)로 인한 아시아 증시 하방 압력.

미국 CPI 둔화: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및 연준 금리 정책 안정화 기대감.

AI & 반도체 랠리:

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호평 (젠슨 황 극찬) 및 외국인 자금 2.3조 폭풍 유입.

KOSPI 7,200선 탈환: 외국인 폭풍 매수와 사이드카 발동



외국인 순매수 180만주(약 2.3조 원)가 유입되며 기관/외국인 공동 매수 사이드카 동시 발동. 개인(-136.4만주)과 기관(-41.4만주)의 매도세를 완벽히 압도하며 상승 모멘텀 유지.

국내 증시 섹터 양극화: Tech 및 경기민감주 쏠림 현상

섹터	1D 등락률	1W 등락률
기계	+8.76%	+6.47%
제조업	+6.95%	+17.35%
의료정밀	+6.77%	+6.86%
증권	+6.56%	-3.71%
의약품	+6.47%	+8.05%
음식료품	-0.06%	-5.88%
전기가스업	+0.10%	-6.61%

분석: 반도체 랠리의 후광 효과가 제조업과 기계 섹터로 집중된 반면,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품 및 유틸리티(전기가스)는 철저히 소외되는 극단적 양극화 장세 시현.

반도체 Super-Tide: 시장을 견인한 투톱

시가총액: 1,634.0조 원

삼성전자

현재가: 279,500원 (+6.27%)

Catalyst: 美 ADR 상장 가능성 관련
재계 설왕설래 및 외국인 펀드 유입.

시가총액: 1,483.8조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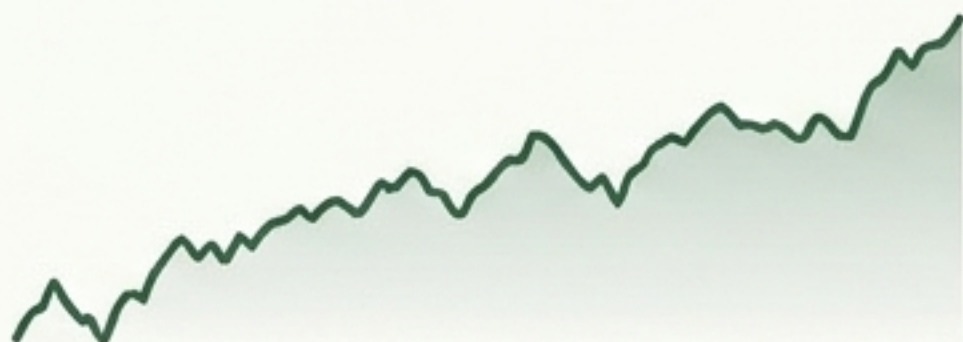
SK하이닉스

현재가: 2,082,000원 (+8.83%)

Catalyst: 젠슨 황의 '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,
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' 극찬 발언.
'역김치 프리미엄' 현실화 및 AI 반도체 랠리 주도.

미국 증시: 물가 둔화 안도감에 따른 기술주 랠리 재개

NASDAQ



26,107.01

+0.90%

Tech-led surge

S&P 5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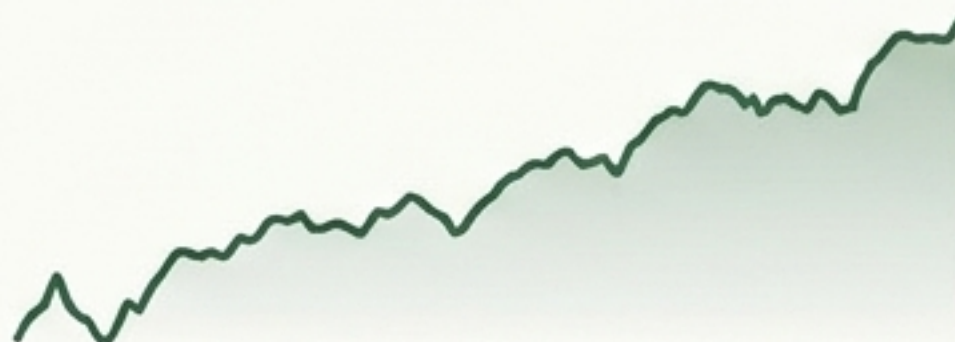


7,543.59

+0.38%

Steady broad market growth

DOW JONE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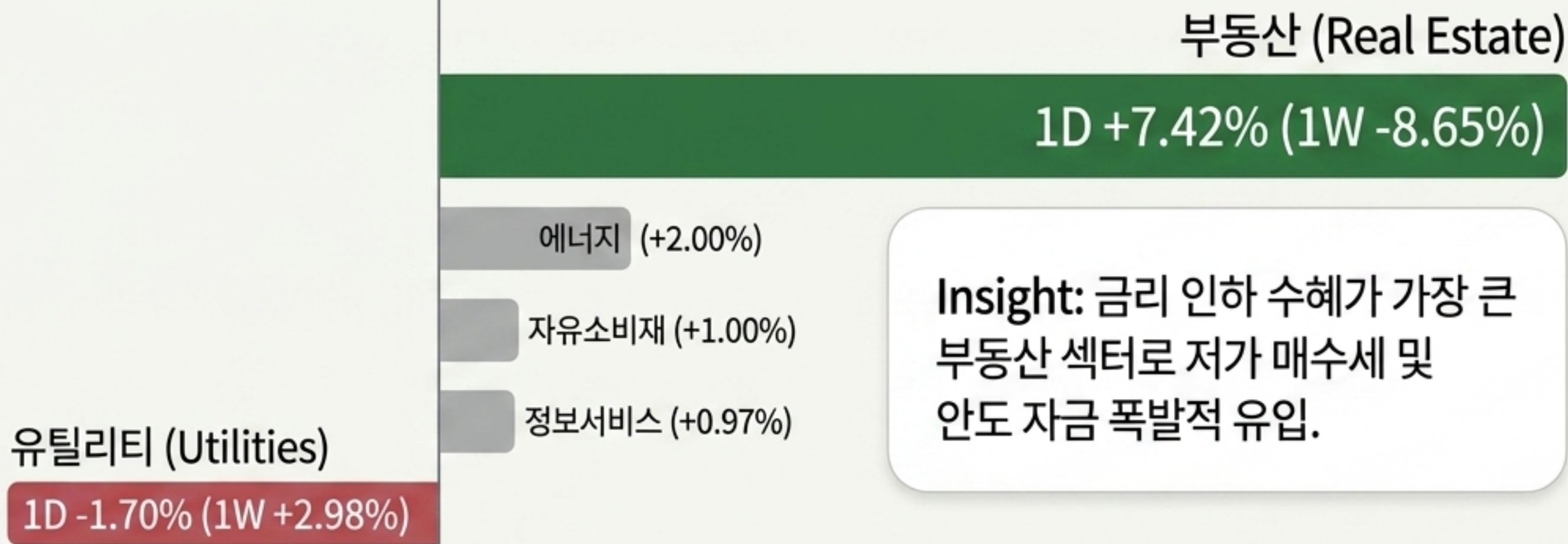
52,046.36

+1.60%

Blue-chip outperformance

미국 CPI(소비자물가지수) 상승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축됨.
연준의 금리 정책 전망이 안정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 급반등.

미국 섹터별 극단적 이동: 금리 인하 기대감의 반영



Insight: 금리 인하 수혜가 가장 큰 부동산 섹터로 저가 매수세 및 안도 자금 폭발적 유입.

Insight: 방어주 성격의 유틸리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며 위험자산(Risk-on)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강세장 초입 패턴.

글로벌 증시 진단: 혼조세 속 지역별 차별화

중국 (China)

상하이종합 **+0.45%**, 선전성분 **+0.62%** / 항셱 **-0.14%**

Driver: 6월 소매판매 호조 vs 2분기 GDP 둔화 리스크.
아시아 증시 전반의 상승에도 중화권은 불확실성 내재.

유럽 (Europe)

STOXX 50 **+0.62%** / DAX, FTSE 100 **-0.14%**

Driver: 방산주 강세 및 우크라이나 평화협상
기대감이 엇갈리며 주요국 지수 혼조세.

일본 (Japan)

닛케이 225 **-0.14%**

Driver: 엔화 약세로 수출주는 견조한 상승세를
보였으나 지수 전체는 소폭 하락 마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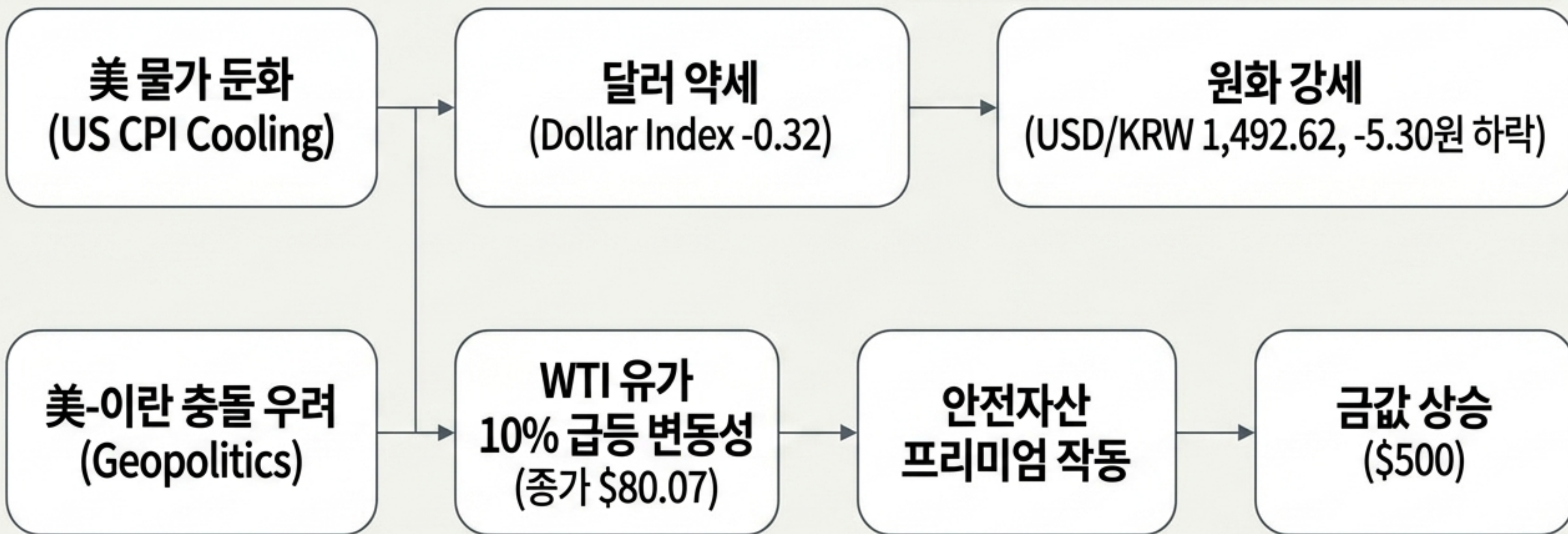
호주 (Australia)

ASX 200 **+0.52%**

Driver: 자원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
견조한 상승 유지.

FICC 매크로 파급 효과 (Ripple Effect)

Note: FOMC 매파 기조 잔존으로 국채 10년물은 +5bp 상승(4.585%)하는 디커플링 발생.



채권 및 외환 (Bonds & FX) 대시보드

미국채 10Y (US 10Y Treasury)

4.585% (+5bp) 

Insight: 물가 둔화에도 불구하고, FOMC의 지속적인 매파 기조가 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.

달러 인덱스 (DXY)

0.1 (-0.32) 

Insight: 유로화 강세(ECB 금리 경로 재평가)에 따른 상대적 달러 약세.

EUR/USD

1.1790 (+0.0031) 

원/달러 환율 (USD/KRW)

₩1,492.62 (-5.30원) 

Insight: 신흥국 통화 매도 심리 완화 및 글로벌 달러 약세 동조화.

원자재 & 암호화폐: 에너지 쇼크와 안전/위험 자산의 동행

에너지 쇼크 (Energy Shock)



WTI 원유

\$80.07 (+\$2.62)

Driver: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재개 소식과
트럼프의 '호르무즈 통행료' 발언 반복.
장중 10% 이상 극심한 변동성.

(단, 최근 유가 하락이 6월 수입물가 최대 하락에 기여함).

안전 & 유동성 자산 (Safe Haven & Liquidity)



금 (XAU)

\$500 (+\$18)

물가 둔화에도 불구하고,
중동 정세 불안으로
'금=안전자산'
공식 유지.

비트코인 (BTC)

\$67,350 (+\$1,240)

ETF 순유입 지속 및
풍부해진 시장
유동성(Risk-on) 흡수.

주간 변동성 히트맵 (Risk & Volatility Heatmap)

수 (7/15) - High Risk

목 (7/16) - High Risk

금 (7/17) - Med Risk

08:00 한국 6월 실업률
11:00 중국 2분기 GDP
(예측: 4.5% - 하방 리스크)
21:30 미국 6월
생산자물가지수(PPI)
23:30 미국 원유재고

10:00 한국 금리 결정
(예측: 2.75%)
21:30 미국 6월 소매판매 및
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

10:00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
(지정학적 리스크 모니터링)

핵심 카탈리스트: 통화 정책 vs 기업 실적

Monetary Policy Watch (중앙은행 위치)



한국은행 (BOK): 7/16 금리 결정 (이전 2.50% -> 예측 2.75% 인상 여부 주목)



미국 연준 (FOMC): 7/15
보우먼(Bowman) 위원 및
윌리엄스(Williams) 연설 (물가 둔화
이후 매파적 기조 유지 여부 판단)



중국 인민은행 (PBoC): 7/20
대출우대금리 결정 (LPR)

Corporate Earnings Watch (실적 발표)



현대차 & 기아: 2026년 2분기 실적
발표 (7/16 예정). 환율 효과 및 수출
데이터 반영 주목



LG에너지솔루션: 2026년 2분기 실적
발표 (7/16 예정). 2차전지 섹터 투심의
향방 결정

Executive Summary & Action Plan

1. 승자독식의 반도체 랠리 탑승

코스피 7천선 돌파를 이끈 외국인 2.3조 매수세의 핵심은 AI 및 반도체. 삼성전자 등 단기 Tech 비중 확대 유지.

2. 매크로 안도감 속 지정학적 헷징(Hedging)

미국 CPI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으나, 중동 발 유가 변동성(WTI 10%대 급등락)이 잔존. 포트폴리오 내 금(Gold) 비중 확대로 리스크 상쇄.

3. 다가오는 변동성 허들 주시

중국 2분기 GDP 결과 및 한국은행 금리 결정(7/16) 등 단기 매크로 이벤트에 따른 국지적 차익 실현 대비 필요.